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色과 形에 의한 自然의 심상적 Image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서 호 성

色과 形에 의한 自然의 심상적 Image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서 호 성

인 준 서

서호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①

심사위원_____①

심사위원_____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자연 속에 인간이 존재하며 자연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자연의 질서 속에 인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예술에 있어 자연은 인간의 표현 욕구를 표현하는 대상이 되어왔다.

본인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 속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갖고 출발 하였으며 색과 형상에 의한 내적 심상으로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것을 자연에서 보여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과 생명의 존재들을 기하학적 조형요소에 의한 단순화를 통하여 본인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삶의 질서를 나타내고 이것을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통하여 본인의 심상을 대변하고자 했다. 본인의 작품은 재현적인 자연이 아니라 비재현적인 자연, 단순한 모방이 아닌 조화로우면서 창조적인 자연, 그 속에 안주하고 싶은 내면세계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정형화된 관념 속에 존재하는 자연에 대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 작품 제작의 출발이다. 본인은 학교 교육을 통해 관념적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그렇게 인식하고 보아왔던 자연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 일상적 삶 속에 배어있는 본인만의 색과 형을 통해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자연 속에서 그 형을 찾아 단순화하고 원색적인 강한 색의 대비를 통해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해 나가하고자 하였다. 단순화된 형상과 색의 대비로 본인의 주관적 의식과 가치관을 시각화 하고 화면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인 구조와 화면을 가르는 선을 통해 본인의 심상을 상징화 하였다.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 분석한 결과로서 형과 색 그리고 기본 조형요소를 기초로한 ‘色과 形에 의한 自然의 심상적 Image 표현’에 관한 연구이다.

서론에서 작품의 연구 목적과 표현 방법을 본론에서는 자연을 통한 이미지 표현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 그리고 작품설명에 대해 서술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 논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향후 작업에 대한 방향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자연을 통한 이미지 표현	3
1)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3
2) 자연의 생명성	5
3) 자연의 질서에 따른 형상의 표현	6
2. 화면의 조형적 특성	8
1) 색(Color)의 심상적 표현	9
2) 유기적 형상의 표현	11
3) 공간표현	14
3. 작품분석	17
III. 결론	33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91 cm 2005	17
【작품 2】 Surface, Form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91 cm 2005	19
【작품 3】 Surface,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91 cm 2005	21
【작품 4】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62×130.3cm 2006	23
【작품 5】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62×130.3, 130.3×97 cm 2006	25
【작품 6】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91cm 2006	27
【작품 7】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91cm 2006	29
【작품 8】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30×30, 30×30, 15×30cm 2006	31

I. 서론

자연주의적인 작품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이미 실재하고 있는 세계를 빌어 나타내고, 예술가적인 표현의 구속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추상예술은 대상과 대상이 잘 나타나도록 다듬는 것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표현양식을 만들어낸다. 1)

1860년대 초 색채와 빛을 통하여 자연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 하려 했던 인상주의는 모든 부분을 실재의 세계를 표현하여 그들의 시각을 말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20세기 초 입체주의에서 시작되는 추상 예술에서는 실재하는 세계를 거부하고 형태의 변형을 통해 그들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또한 20C 이후 예술가들은 주관성에 따른 미적, 방법적 실험을 거쳐 더욱 다양해진 예술적 표현 양식을 만들어내고 기하학적인 형상과 색채 등의 조형적 양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실재하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표현적이고 확실한 내적 심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던 것이다. 또한 예술가는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사상이 있고 그것에 따라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나타내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예술가 자신의 느낌을 독창적으로 표현 하려 한다.

자연은 다양한 시각적 형태와 색이 있는 곳이다. 또한 자연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명체의 움직임은 예술가의 작품 모티브가 된다. 본인은 자연 속에 움직이는 생명체를 통해 작품의 모티브를 얻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자연에 대한 심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강하면서 친근한 색감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점·선·면 그리고 단순화

1) W. Kandinsky, 차봉희 역, 점·선·면, 2004, p191

내지는 기하학적 형상들 사이의 새로운 조형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본래의 대상의 형태를 버리고 기본 조형 요소로 이루어진 화면 속에 주관적인, 본인의 창조적 표현 양식에 따라 형과 색을 화면에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작가의 표현 양식은 자율적인 형상을 통해 대표되는 작가 자신의 언어일 수 있고 정감적인 색의 조화에 의해 표현 될 수 있다. 즉 본인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주관에 따른 형상 그리고 색을 통해 다양한 경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色과 形에 의한 自然의 심상적 Image’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을 기본적 조형요소와 색을 통하여 재해석한 작업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 장에서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가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하고 예술가의 눈에 보여 지는 자연의 형상들과 그것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 모색하였다. II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적 측면을 가지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어떠한 구조로 표현해 나가는지 그 조형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III 장에서는 I, II 장에서 서술한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Ⅱ. 본 론

1. 자연을 통한 이미지 표현

1)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은 관념과 감각적 현실 속에서 갈등과 조화의 반복된 존재이다. 인간은 이러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정화 시키고 정서적 밑거름을 제공 받는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세계가 있다. 인간은 자연에게 있어 이러한 정신세계 안에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은 작가를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로 자리하고 탐구되어 왔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자연은 보다 예술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지고 작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출발점이 되어왔던 것이다.

예술가(인간)는 자연을 향해 끊임없이 미(美)를 추구하고 동경해 왔다. 예술가들의 동경은 자연 속에서 미(美)를 찾고 그들이 체험하고 느낀 이미지를 형상화해 왔으며 이것은 조형 예술로서 가치추구를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으로 부터의 형상을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영원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는 욕구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그들의 사상 내지는 관념으로 그들만의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자연으로 말할 수 있다.

본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방법과 주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화면 속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보고, 느끼고 사고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대상을 보든 보지 않든 늘 깨어있으며 그에 따라 사고하고 작가(예술가)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자연은 인간(예술가)에게 끊임없이 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을 인간은 무한한 관심을 표방하고 동경해 왔다. 예술가는 무한한 자연 속에서 미(美)를 찾고 그들의 내면세계가 반영된 이미지를 형상화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예술의 가치를 자연에서 찾으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다. 자연은 아름다우며 예술작품으로 나타나는 자연이 또한 아름답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표현의 의도가 미(美)에 있다면 예술은 인간의 내면이 투영된 또 다른 세계의 표현일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함께 공존하다. 인간은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생성, 소멸의 순리를 따르고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는 동양에서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순리에 인간 자신의 존재를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예술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자연은 동양과는 다른 실험적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보여 지지만 이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적인 표현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자연의 이미지 안에 본인의 심상을 투영하여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형상화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연을 초월한 새로운 이상향을 설정

하여 표현하고자한 것이다.

2) 자연의 생명성

자연(Nature)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피시스(Physis)에서 유래한 것인데 생성을 뜻 한다. 철학에서의 자연은 스스로의 원인으로 스스로를 낳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겨나서 자라고 소멸하는 것이 자연이고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 하는 것이 자연이다.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연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예술가는 이러한 생명력을 통해 내적 심상을 형상화하며 주관적 표현 방법들로 표현해 나간다.

자연은 미학적 사색의 전부로서 예술가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의 순환과 변화하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제시한다.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생성 원리에 의해 소멸과 탄생의 순환에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다.

자연은 대상의 외형 뒤에 만물의 생명체를 포용하고 그 존재의 원천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큰 생명의 근원이며 출발점이다. 이러한 자연 속 생명의 힘을 화면을 통하여 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등의 색면에 의한 정적인 표현과 유기적인 선에 의한 동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동감을 강한 색의 대비와 구성적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 보여지는 형상들은 특정 대상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 내지는 은유로 내면적 심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본인은 내면적으로 형상화 되어지는 상징적 형상물로 (작품도판1~7)에서 보여지 듯 나비의 형상

2) 자연 속에 내재된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이설자, 1995, p3

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고 삶에 대한 욕구를 더듬이로 표현하였으며 색의 대비를 통해 생명에 대한 강한 생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자연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의 존재와 숨 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자연 안에 존재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아름다움의 본질이며 절대자인 것이다. 또한 자연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보다 자연 그 자체로서 아름다우며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미(美)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선 존재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이 이런 자연으로부터 미(美)를 느끼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 이유가 바로 자연이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생명력에 이미지의 대상으로 곤충이나 나비 등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선을 통하여 표현 하였으며 자연이 주는 생명의 공간을 나뭇잎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본인의 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이 사용한 각각의 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색들 간의 대비를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자하는 주관적 의미를 다시금 상기 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본인에게 있어 삶의 존재와 주변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내면화된 이미지를 상징화 시킨 것이다.

3) 자연의 질서에 따른 형상의 표현

근대 이전의 회화는 자연의 외관을 그대로 모방하는 재현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C 이후 과학의 발달로 사진술과 대중매체가 급속한 성장을 함에 따라 재현보다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이미지나 주관적 시각에 의한 이미지 표

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작품을 형성하는 이미지는 작가의 주관적 시각에 따른 표현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물로 이미지는 내용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심상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술가 들이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빌려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의 대상이 표현적 성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목적은 느낌을 불명확한 대상 속으로 이입시키는 것이다.³⁾ 예술가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내적 심상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모티브를 기반으로 주관적인 형상을 형성해 나가고 그것을 화면 속에 창조적 조형 언어로 표현해 나간다.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은 기본적인 창조 행위를 말하며 하나의 예술 작품은 구체화된 행위와 더불어 그의 정서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단을 발견한 순간에 생겨난다.⁴⁾ 이것은 각 개인의 정서나 시각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고 따라서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관점으로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은 자연에서 근원하는 형상들로 기하학적 형태들과 직선, 곡선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가고 기본 색으로 면을 만들어 표현하는 평면적인 단순성으로 서로의 연관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이상향의 마음을 상징적 의미로 형상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인 작품 전체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 형상과 색의 대비에 의한 구성적 분위기는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심상의 재현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참고도판1)는 “자연과 예술은 동등하고 이것은 인정되어 향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향유를 통해 얻어지는 내용물은 현존하는 것과 같다. 현존하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듯이 그것의 결과물 또한 생명 즉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이지만 작가의 영

3) Meovin Rader Bertram Jessup, 예술과 인간의 가치, 김광명 역, 이론과 실천, 1997, p214

4) Herbert Read, 예술이란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문화사, 1991, p25

혼이 투영된 형상들은 각각에 영혼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연 속에는 변화와 통일, 균형, 비례, 대조등과 같은 질서가 있는데 이는 곧 미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가 들은 이러한 원칙하에 예술작품을 계속해 왔으며 자연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통한 표현에 의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 독창적 양식을 형성하여 왔다. 5) 이러한 독창적인 양식의 출발은 작가의 심상이 반영된 형상으로 이 형상 안에 생명의 힘을 담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을 시도했던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참고도판2)와 형태와 색채를 감각적으로 사용했던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참고도판3)는 그림이 예술로서 힘을 가지려면 현실세계의 형상들이 화면 위에서 재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회화의 전통적 명암법, 원근법은 무시되었다. 그들은 주관적이고 또한 개념화된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을 회화의 견고하고 규칙적인 형상물로 재창조 하였던 것이다.6)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나비의 형상은 나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상징화 한 것이고 또한 본인의 심상을 사실적이지 않은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평면화된 화면으로 구성적인 분위기 와 색의 대비를 통해 본인이 지향하는 자연의 여유로움과 생동감, 서로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이상향을 나타낸 것이다.

2. 화면의 조형적 특성

5) Herbert Read, 예술이란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문화사, 1991, p228

6) 인체와 자연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평면회화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2003, p9인용

1) 색(Color)의 심상적 표현

색은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정의 될 수 있다. 단지 색은 어떠한 존재를 믿게 하는 조건과 지각 행위들, 즉 ‘색채의 현상’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채 현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즉 빛의 근원, 이 빛이 투사되는 변조기로서의 물체, 그리고 생물학적 측면과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의 눈과 뇌로 구성되는 복잡한 감지 기관 등을 통하여 색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뇌에 각인된 인식능력 혹은 상상력으로 해독 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⁷⁾

색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공통적 언어이며 예술 영역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영상 작용을 통해 예술로 표현 되어지는 시각언어 이다. 색은 인간이 자신의 감성과 개성에 따른 본능과 욕구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시각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중요성과 예술적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 색은 작품에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른 조형요소와 함께 내적 심상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색을 통하여 하나의 공간성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색은 예술적 표현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색으로 작가의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색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다. 색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크기는 나라마다 작게는 작가 개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색은 그 사용자의 사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

7) Michel Pastoureau, 전창림 역, 색의 비밀, 미술문화, 2003, p61

한 색채 이론보다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색채가 더 많은 내용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말이다. 따라서 예술가의 색은 내적 심상을 표현하는 조형 수단인 것이다. 본인이 사용하는 색은 각각의 요소에 힘을 주며 상반된 색의 대비에서 오는 조화로움으로 본인의 심상을 대변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강한 색의 대비로 더욱더 내적 힘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44)(참고도판7)는 명암대비와 색채대비에 의한 색의 강조와 화면에 장식성을 도입하여 그의 표현 의도를 나타내었다. 철저한 관찰에서 오는 사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색과 동질화 시키고 자신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조직화하여 사용하였다.

본인이 사용하는 색은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 등의 기본적 색이 주를 이루고 각각의 색에 의해 전체적인 분위기의 조화로움을 찾아 심상에 따른 창조적 공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색에 감정을 실어 표현하고 색의 대비를 통해 존재 내지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인상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감성의 전달 방법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각 색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와 본인이 부여한 의미를 살펴보면 빨강은 천상의 밝음과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색시가 바르는 연지끈지 빨강처럼 젊음을 의미하고 자연 안에서 존재하는 빨강은 만물의 번성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정열, 열정이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파랑은 탄생과 약동하는 힘을 의미한다. 파랑은 승화(昇華)요 피안(彼岸)⁸⁾의 색으로 초월, 지향(志向), 희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하늘의 색과 물의 색을 삶 속에 함유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또한 파랑은 쉬고 싶은 곳, 무한한 공간의 끝없음을 의미한다. 노랑은 중앙을 나타내는 색으로 늘 촉촉이 젖어있는

8) 불교에서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일, 또는 그 경지

만물이 잘 자라는 평평한 땅으로 번영을 의미한다. 본인에게 있어 노랑은 넓은 대지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조화로우며 보호 받고 싶어하는 포근함이나 따스함의 표현이다. 검정은 자연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저장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 또한 복잡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흰색은 어떤 색으로도 물을 들일 수 있으나 어떤 색으로도 물들이지 않는 자존(自尊)의 색으로 자연 그 자체의 표현이다. (작품도판2) 에서 본인이 표현한 검정과 흰색은 나를 버린다는 무(無)의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이다.

색채가 내면적, 주관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색채는 생리적인 문제보다도 실리적인 문제가 더 중시 된다는 의미이다. 9)

칸딘스키에 의하면 형태와 색채는 추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요소라 하여 이 두 요소는 서로 “상호 조건 부적”이라고 하여 “형태는 색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색채는 형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본인의 작품에서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의 단조로움을 강하고 자극적인 원색을 이용하여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분할된 색면의 배치로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면이나 선의 무의미함을 색의 대비를 통해 피하고 본인의 감성과 내면 의식을 일치시켜 나타내고자 했다. 색의 대비는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강조해주며 본인이 표현하고자하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인상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표현의지를 색과 형을 통해 표출하는 방법으로 표면화 시킨 것이다.

2) 유기적 형상의 표현

9)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p288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체의 다양한 형상은 일정한 법칙없이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유기적 형상들을 면과 색에 의해 조형적 질서를 나타내고 기본 조형요소를 통하여 화면 속에 조화로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하여 사각형이나 마름모꼴 또는 타원형의 형태로 중첩 내지는 분산, 교차하여 표현 하였다.

본인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 조형요소인 점·선·면의 그 특징과 본인이 나타내고자한 의미를 살펴보면 점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최고로, 그리고 가장 개별적으로 침묵과 언어를 잇는 연결이다. 끝임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점은 중단, 즉 부재(不在)(부정적 요소)의 상징이며 동시에 점은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에 이르는 교량(긍정적 요소)역할을 한다.¹⁰⁾

점의 표현은 반복과 중첩의 방법으로 표현되면서 화면전체를 미세한 색 점으로 짜임새 있게 표현되며 또한 율동적 구조를 뒷받침해 준다. (참고도판4)는 칸딘스키의 초기 작품으로 모자이크와 같은 영롱한 느낌의 색점으로 도시 풍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색 점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완전추상에 이르는 초기 단계로서 가시적인 세계의 재현을 위해 추상적 구성과 시적 표현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무엇을 그렸느냐와는 관계없이 점에 의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한 표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작품도판8)에서 보여 지는 점의 표현은 삶의 재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무질서 하게 엉켜있는 존재들의 형상으로 일반적으로 형성되어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고 푼 욕구를 표면화한 것이다. 점을 표현함에 있어 점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능동적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생명을 불어 넣은 것이다.

선은 자립적 생명을 지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점의 움직임에 의해

10) W. Kandinsky, 차봉희 역, 점·선·면, 2004, p17

생겨나는 것이다. 작품에서의 선은 내면의 삶의 이미지와 사유의 과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물질적인 한계를 벗어나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식의 궤적을 반영하는 매개체이다.¹¹⁾

선의 이동은 화면 속 공간의 위치에 따라 삶의 이미지와 끝없는 공간 속으로 확장되는 시간성의 변화를 암시한다. 또한 이차원의 공간에서 삼차원의 공간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채워주고 발전과 영역의 확장을 보여준다.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참고도판5)은 본질적인 표현은 순수한 조형요소를 통해서만 이를 수 있고 선들의 적절한 각도에서 서로 교차하면 역동적인 평온함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선은 점에서 확장되어 형태의 윤곽을 표현하는 재현의 수단으로서 일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버린 기하추상에서 지적(知的)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형상의 단순화에 따른 서정적 추상에서는 직관에 의한 감정과 내적 표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느끼는 내적 심상에 따른 형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고 영원한 시간성과 공간, 작가가 말하고 품주체를 표현하기 위한 추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작품도판1~7)에서 보여 지는 선들의 의미는 삶에 있어 출발을 의미한다. 더듬이로 대표되는 선은 삶의 욕구에 따른 영역의 확장이며 안내자의 역할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미하고 현실과 이상향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작품도판5,6,7)에서 보여지는 철사 오브제를 선으로 사용한 것은 철의 강한 성질을 부각시켜 생명 내지는 존재에 대한 강인함을 표현한 것이다.

면은 차가운 안정감의 성격을 띤 두요소(수평선)와 따뜻한 안정감을 띤 두요소(수직선)의 상호 이중 울림이며 이것은 면의 안정된, 객관적인 울림을 만

11) 추상성에 따른 공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미령, 2006, p12

들어 낸다.¹²⁾ 본인은 이러한 수평선과 수직선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면을 이용하여 캔버스 위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이러한 공간은 중첩된 공간의 이미지로서 삶의 다중적 측면을 상징화 한 것이다. 고정 불변의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역과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생명체가 있는 공간이 그것이다.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하면서도 질서와 합리성을 표현한 몬드리안은 (참고도판6)에서 회화에서의 모든 장식성을 버리고 간결하면서 심상이 함축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일체의 대상성과 구상성을 배제하고 형태와 공간, 구성적 표현과 강한 색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감성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형상을 만드는 표현 방법에 있어 사각의 형태를 통한 기하학적 형상을 사용한다. 기하학적 형상은 재현이 가능하고 객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보색 대비를 이용하여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주고 그 크기를 달리하여 시각적 움직임을 의도 하였다. 단순명료한 형상과 색의 대비는 시각적으로 확장되어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작품 전체에서 보여지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형상들에서 내면에 존재하는 형상을 면을 통해 단순하게 재구성하고 색의 대비로 화면 전체를 구성한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가서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점·선·면의 구성은 비정형화된 기하학적 평면으로 심상에 따른 이미지만을 나타내고 각각의 요소에 의해 생명체가 존재하는 의미와 공간을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평면화된 구성적 이미지로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한 것이다.

3) 공간표현

12) W. Kandinsky, 차봉희 역, 점·선·면, 2004, p105

작품 속의 공간은 배경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화면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분위기는 작품 전체에 있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감성을 모두 내포하고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인 작가의 감정을 나타내고 삶 내지는 현실세계의 이상적 상황을 직, 간접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S.기디온(S. Giedion)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는 예술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예술적 발언은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나 인간에 대한 기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행위나 예술 모두는 작가가 인식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실리적 공간 표현으로 나타나고 이미지와 색에 의한 분위기로 표현 된다.¹³⁾

작가의 시각에 의해 보여 지는 현실 세계는 작가 내부의 사고 과정에 따라 재창조되어진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은 본질적인 심상을 의미하는 요소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의 공간은 내면적 공간으로 색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재 존재하는 삶의 영역에서 우주와 같은 무한한 공간을 설정한 것이고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찾아 떠돌며 여행하는 이상향인 것이다.

모든 미술작품은 공간에 대한 시각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 즉 예술적 공간은 감각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경험적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회화의 공간은 화가가 선, 형, 색채 등 조형적 요소를 수반 했을 때 새로운 현상으로 보여 지게 된다.¹⁴⁾

본인 작품 전체에서 보여지 듯 심상에 따라 형성된 형상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작품도판1~7)에서 형상에 의한 공간(현실)과 배경에 의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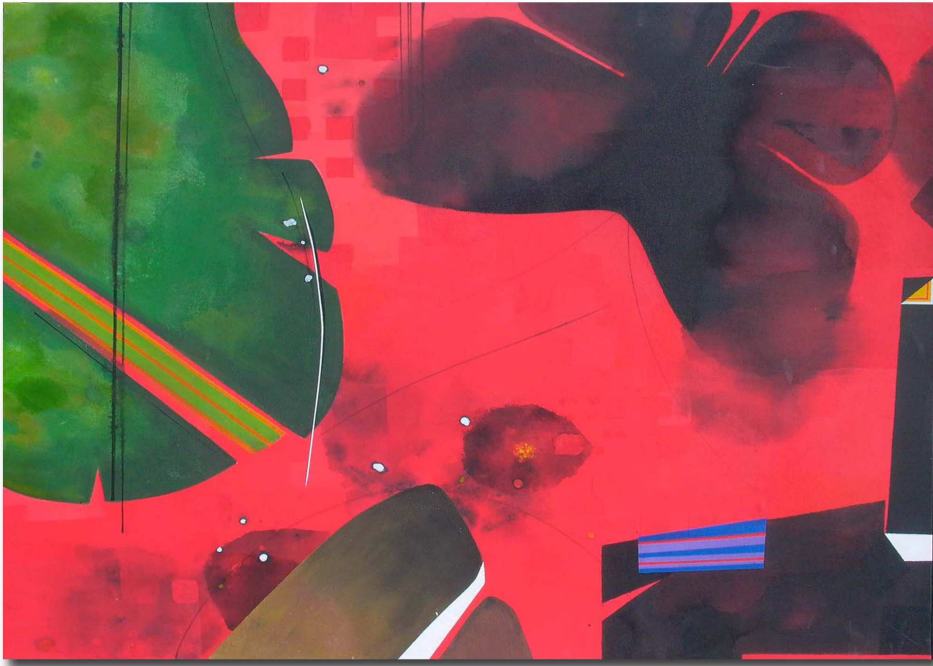
13) 일상의 이미지를 통한 상상적 내면 공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애, 2001, p33~34인용

14) Roudolf Arnheim,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익사, 1981, p366

(이상향 내지는 심상)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적 상황을 선을 통해 상호 유대적 관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본인 작품에서의 공간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색과 형상을 통한 추상성과 끝없는 우주와도 같은 자연의 영속성 또는 만물을 포용하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심적 자유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환영적 공간으로의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과 개념 확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면 속 공간의 최대한 확장과 최소한의 형상으로 구성된 공간은 변화, 통일, 균형의 배치와 기하학적 배경으로 공간개념의 확장을 시도 한 것이다.

3. 작품분석



【작품 1】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 cm 2005

【작품 1】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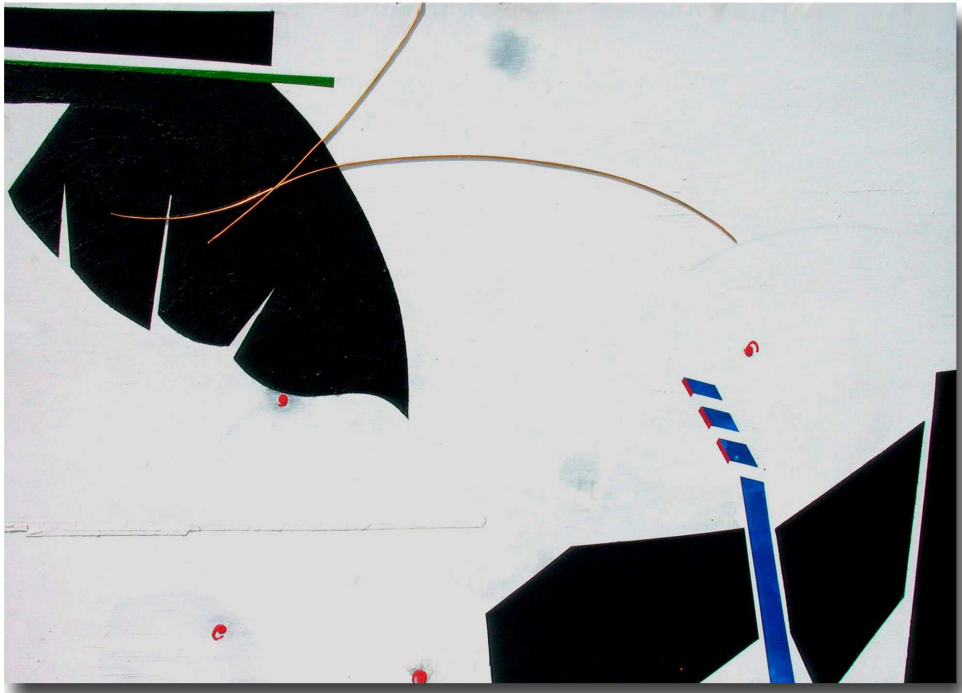
116.7X91 cm 2005

단순화된 형상을 이용한 조형적 형성과정의 초기 작품으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나비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통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미지를 제거 하였다.

나비와 나뭇잎, 먼으로 대표되는 형상 속에 주관적 색채를 사용하여 조형적 조화를 이루려 하였다.

화면 속에 빨강과 검정의 사용은 삶과 죽음의 강한 대비적 효과를 시도하였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심상 및 바닥에 깔린 혼란, 갈등과 이상향을 대조적으로 강조하였다.

화면에 나타나는 형상 속에 동양화의 우연에 의한 번짐 효과로 시간성을 나타내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한 형상과 배경 사이의 깔끔한 처리로 현대적 조형의식을 나타내었다.



【작품 2】 Surface, Form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 cm 2005

【작품 2】 Surface, Form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 cm 2005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원초적 발생지 이다.

넓은 것, 끝이 없는 것, 신비로움의 여러 현상들 속에 우리가 존재하며 더불어 숨 쉬고 있다.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는 흰색 위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검정 색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자연 속의 생성과 소멸, 있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생겨나는 생명의 존재들이 담겨져 있다.

백색을 반복적으로 칠하고 중간 중간에 이미지를 형상화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화면 위에 다시 이미지를 넣었다. 색의 반복된 중첩은 색의 상징성과 함께 색의 겹침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색에 의한 심상의 울림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연 속에 나란 존재를 포함시키고 존재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수양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작품 3】 Surface,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 cm 2005

【작품 3】 Surface,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 cm 2005

자연에 대해 작가 스스로가 해방하는 것이 예술가의 목적이라 했듯이 예술가는 대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상이 회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여러 요소의 혼합이 듯 여러 색의 혼재 속에 조화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지 않고 서로 간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아마도 산 속의 오래된 절간의 단청처럼 빛바랜 이미지의 색이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는 은은함을 내포하고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이미지 내지는 느낌을 가지고 어느 것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화면 속에 색을 채워 넣었다. 돌가루와 안료를 섞은 물감을 가지고 나이프로 자유로운 의식과 행위를 표현하였다.



【작품 4】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62X130.3cm 2006

【작품 4】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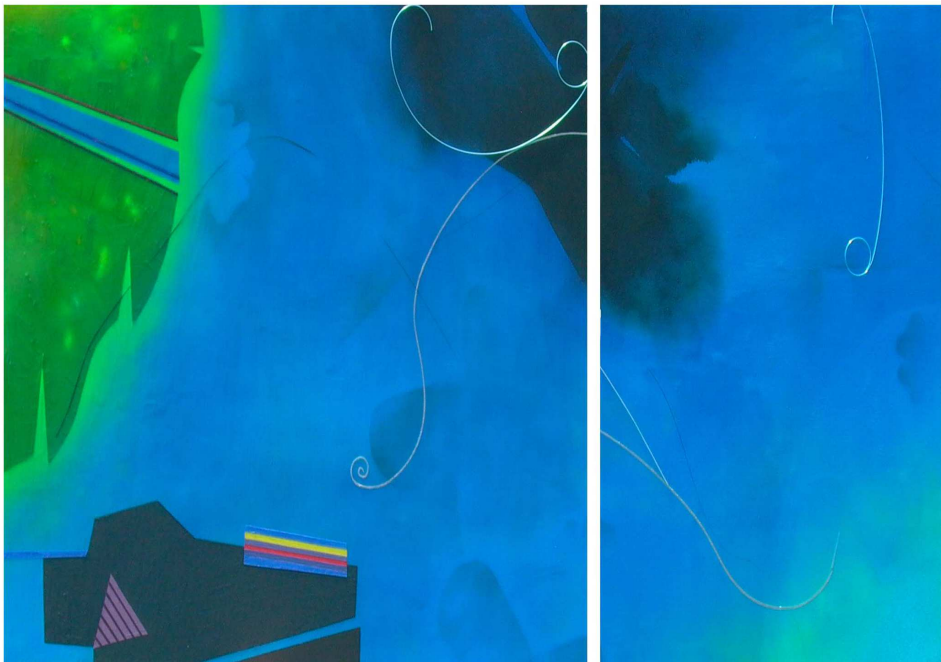
162X130.3cm 2006

자연 속의 빨강은 더욱 강렬하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다가오는 강하고 자극적인 인상의 색이다. 또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한다.

자연 속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간의 조화로운 공생, 또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서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했다.

차분히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을 주기 위해 돌가루에 안료를 혼합하고 마띠에르를 통해 그 느낌을 표현하였다. 색의 번짐과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우연의 형식으로 기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붓으로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면 위에 안료와 돌가루가 혼합된 색을 채워 넣고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작품 5】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62X130.3, 130.3X97 cm 2006

【작품 5】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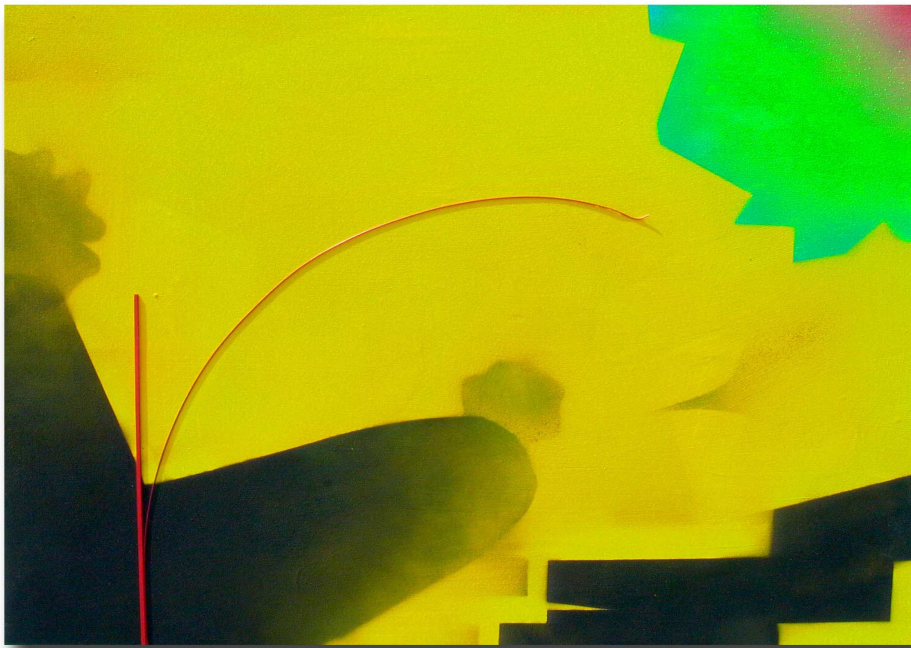
162X130.3, 130.3X97 cm 2006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은 시원함과 평온함을 느낄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 인간은 그 속에 매료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깨의 짐을 놓아 버린다.

파랑의 넓은 화면은 바다와 같다. 그것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나란 존재에 대한 덧없음으로 인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

위의 작품과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오브제 사용을 시도한 작품이다.

색채와 형상을 최소로 하고 청색의 모노톤만을 이용하여 조형적 공간을 최대한 부각 시켰다. 그 속에 삶의 욕망을 대표하는 더듬이를 철사 오브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아의 강인함을 나타내었다.



【작품 6】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cm 2006

【작품 6】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cm 2006

작가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창작의욕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제공하며 자연의 세계는 그것을 사유하는 작가의 의식과 생각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작품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뚜렷하지만 때로는 모호한 정신세계를 표현하려 했고 색채는 본인의 주관에 따른 포근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성을 나타내고 본인의 개성적 색채와 방법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표현 했으며 화면 속의 정확한 형상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진 감정을 표현하였다.



【작품 7】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cm 2006

【작품 7】 Form,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116.7X91cm 2006

변화하는 자연은 성장하고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조화와 질서가 담겨져 있다. 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색의 변화가 다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느낌 또한 다르다. 여기서 변화하는 자연과 그에 따른 느낌을(의도되어졌지만) 우연에 의해 형성된 꽃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배경의 마티에르는 자연에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여러 존재들 또는 본인의 갈등적 상황으로 존재에 대한 무거움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여유롭게 존재하는 생명체를 화면을 가르는 선(더듬이)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8】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30 X 30, 30 X 30, 15 X 30cm 2006

【작품 8】 Color and nature Mixed media on canvas

30 X 30, 30 X 30, 15 X 30cm 2006

모든 형상의 이미지를 버리고 절제에 따른 평면화 된 그림이다.

자연에서 주는 평화로움, 외로움, 고독과 번뇌의 심적 혼란을 화면을 통해
씻어 버리고자 했다.

생명의 욕구에서 출발해 삶의 어지러움을 버리고 아무것도 사유하지 않는
무의 경지에 오르는 인생의 순서를 의미한다.

세 개의 화면이 빨강과 빨강 위의 색 점 마지막에 흰 색의 화면이 그것이다.

Ⅲ. 결 론

20C에 이르러 추상미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 단순화된 형태와 색채, 그리고 기본적 조형요소들이 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개념들의 예술적 영역 형성을 가능케 했고 표현 가능성의 무한한 확장으로 예술적 표현에 기여 하였다.

본 논문은 ‘色과 形에 의한 自然의 심상적 Image 표현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 자연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본인이 동경하는 조화로움과 서로가 공생 할 수 있는 이상향의 바램을 기본 조형요소에 의한 단순화된 형상과 색의 근원인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의 색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 자연과 인간, 작가는 예술가의 관계 속에서 예술가가 자연으로부터 미(美)를 찾고 그것을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면을 고찰하였고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 내적 심상을 형상화해 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주관적 형상의 형성 과정을 설명 하였다.

조형적 면에 있어서는 본인 작품의 조형적 소재가 되는 점·선·면, 색에 따른 공간 형성에 관해 작품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 본인은 주관적 심상에 따른 객관적인 표현 방법이 부족하였으며 창의적인 이미지 표현을 통한 내용의 전달에 있어 주관적 해석이 많았고 이것들로 인하여 독창적 영역을 만드는데 힘겨움을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하여 독창적 표현과 그것을 시각화 하는 방법적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질감이나 공간의 깊이에 대한 연구로 보다 밀도있는 표현을 통해 기하학적 형상과 유기적 형상 사이의 조화를 앞으

로의 과제로 삼고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적 자세로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통하여 보다 나은 조형 세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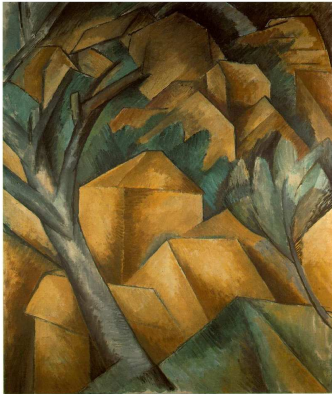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참고도판1) 칸딘스키_추억_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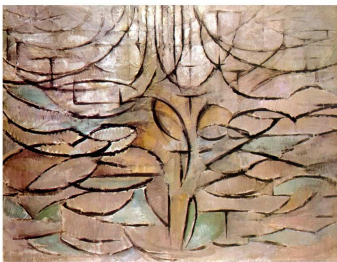
(참고도판2) 피카소_클라리넷을 든 남자_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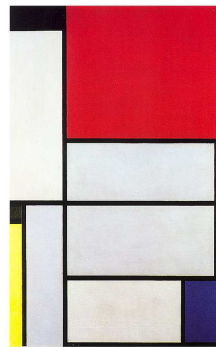
(참고도판3) 브라크_에스타프의 집_1908



(참고도판4) 칸딘스키_말을 탄 여인_1906-1907



(참고도판5) 몬드리안_꽃핀 사과나무_1912



(참고도판6) 몬드리안_구성_1921



(참고도판7) 마티스_후식_1908

참 고 문 헌

- W. Kandinsky, 점·선·면, 열화당, 2004
- Notbert Lynton, 윤난지 옮김, 20세기의 미술, 예경, 2003
- 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문화사, 1991
- Melvin Rader, Berfram Jessup, 김광명 역, 예술과 인간의 가치, 이론과 실천, 1997
- Michel Pastoureau, 전창립 역, 색의 비밀, 미술문화, 2003
- Roudolf Arnheim,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익사, 1981
-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7
- 인체와 자연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평면회화 연구, 중앙대학교, 2003, 김소영
- 자연속에 내재된 이미지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95, 이설자
-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2002, 노동목
- 일상의 이미지를 통한 상상적 내면공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01, 정선에
- 기하학적 형상의 형성과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99, 김재성
- 추상성에 따른 공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06, 정미령

ABSTRACT

A Study on the Imaginary Image Expression of Nature by Color and Shape

- based on my works -

Seo, Ho S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beings exist in nature, and they lead a life through nature, and they exist in the order of nature. So, in art, nature has been subject to express the expression desire of human beings.

Human beings express by artistic inspiration in great nature through endless observation for the life power and beauty of nature, and they play the role of creating new nature by including artists' own image in it.

I tried to simplify image to be obtained from nature, show the plastic order of nature by taking geometrical basic plastic element, and show my image through basic color. My work is to try to show inside world to want to live in peace in unreproductive nature which is not reproductive nature, harmonious and creative nature which is not simple imitation intentionally.

To try to get out of what attract our eyes and nature to exist in our

standardized idea is the start of work manufacture in me. I try to release from nature which is formed ideologically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which has been recognized and has seen so in accordance with it. Because I want to show through what is felt than what attract eyes, my own color and form to be saturated in daily life. Thus, I tried to find the form in nature and simplify and tried to constitute abstract picture through strong color of primary color. Simplified form and color visualized my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sense of value, and I symbolized my image through geometrical structure to be seen in the space of picture and line to divide picture.

This thesis is the study on the imaginary image expression of nature which is based on form and color and plastic elements such as dot, line and surface etc. as the result which studied and analyzed my works manufactured during my graduate school days from 2004 to 2006.

I described study goal of work and expression method in introduction, and described contents side and plastic side of image expression through nature and work explanation in main discourse, and explained my work world by arranging the contents of this thesis synthetically in conclusion lastly, and I tried to make it as momentum to establish the direction for future work.